

보성군, 어르신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 '총력'

경제적 자립 2760명 일자리 창출 2025년 일자리 3151명 확대 목표 첨단IT장비활용 돌봄 체계 구축 AI돌봄 로봇 기반 응급 대응 편성

보성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쾌적한 생활 환경, 소득 창출 기회, 최신 IT 돌봄 장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한 다채로운 복지사업을 선보이고 있다.

어르신들의 일상을 세심히 챙기며 정결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사업은 고흥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이불 세탁을 힘들어한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 시행한 이불 빨래방 사업이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

리 사업도 눈길을 끈다. 군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등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통해 현재 2760명의 어르신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를 315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성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해 100명의 어르신이 안정된 소득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첨단 IT 장비를 활용한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 내 설치된 1492대의 응급 안전 장비와 AI 돌봄 로봇 100대를 통해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상자가 실신 또는 낙상하는 경우 119와 생활지원사에게 알리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득량면에서 저혈당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윤 모 어르신이 생활지원사의 발 빠른 조치와 응급치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바 있



김철우 보성군수가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시행중인 한글교실에 참여해 한 어르신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다.

보성군 관계자는 "통합 돌봄 부서를 통해 재택 의료 서비스, 사회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

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역 사회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숙박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고흥군, 야놀자 플랫폼과 협업

고흥군이 야놀자 플랫폼과 협업하여 가을맞이 파격적인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야놀자 플랫폼에서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고흥 지역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결제액 기준 7만원 이상 시 4만원, 5만원 이상 시 3만원의 할인이 제공되며, 적용할 수 있는 투숙일은 12월 15일까지다.

특히, 이번 숙박 할인 프로모션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4회 고흥유자축제'와 오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과 함께 진행돼 가을철 관광객 유치 및 고흥만의 특별한 여행콘텐츠 홍보와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구례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공연과 강의 접목 방식 진행

구례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비장애인 혼성 예술단 '브릿지'의 앙상블의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장애인 2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된 브릿지 앙상블은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이어진 밀알문화예술센터 정규태 센터장의 강의는 장애인 예술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조명했다.

군 관계자는 "예술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보성군 울변마을 정화활동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는 5일 주암댐 상류인 보성군 울변마을에서 2024년 영·섬유역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합동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마을주민들에게 수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와 울변, 사단법인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울변마을 주민이 참여해 도랑 주변 농촌·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전국일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처장은 "관리주체가 부재한 강 최상류 도랑의 수질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댐 상류 도랑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보성군이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6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6주년 기념행사 개최

보성군은 지난 2일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6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벌교읍 일원에 위치한 태백산맥문학관의 개관 16주년 기념식과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팬사인회'가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김원 건축가, 해냄출판사 송영석 대표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관람객 100여 명이 함께

했다. 개관 16주년을 기념해 조정래 작가는 소설 태백산맥 전권(10권)을 필사한 7명의 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재 태백산맥문학관에는 이번에 기증된 7권을 포함하여 총 68건의 기증 필사본이 전시돼 있다.

오후 2시에는 '벌교를 배경으로 한 태백산맥 속으로'라는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북콘서트'는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의 진행과 평론으로 진행되었으며, 관객들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

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에서 온 필사자는 "중학생 때부터 10년 동안 소설을 필사했다"며 "이번 필사를 통해 작가를 만나 뵈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소설 태백산맥과 벌교 역사의 구심점으로서 더 많은 분이 관람할 수 있도록 태백산맥문학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산맥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된 보성군 벌교읍에 2008년 개관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며 국내 최고 문학기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여수시, 산·관·학 융합 취업 교육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 대상

여수시는 지난 4일 '산·관·학 융합 취업 역량 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 35명에게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견학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전남대학교가 공동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여수국가산단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입주기업 현직자를 만나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고, 실무 역량 등 입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업의 인제상, 면접 기법 등 산단 취업 전략 특강과 기업 현장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남도 주류 페스타' 개최 8일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서

고흥군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4 남도 주류 페스타'에 참가해 고흥유자 전통주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주류 축제로, 술과 문화의 어우러짐 '남도 주안상'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에서 생산된 유자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2개 업체가 '남도 술 홍보·판매관'에 입점해 다양한 유자 전통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음 행사에서는 박람회 참석자들이 최근 출시된 고흥 유자 전통주를 도수별로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흥만의 특별한 맛과 향을 살린 유자 전통주는 녹동 양조장 어떤하루의 '고흥 유자주', 풍양 청정농조합의 '유자약주', 서울 장수막걸리의 '달빛 유자주' 등이 달콤하고 부담 없는 도수로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2024 여수밤바다불꽃축제'... 구름 인파 속 흥행

'2024 여수밤바다불꽃축제'가 지난 2일 가을밤을 해상 불꽃과 라이트닝 드론 쇼로 물들이며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불꽃, 바다에서 미래와 만나다'를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펼쳐진 이날 축제에 8만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축제장 인근 호텔, 상가, 아파트, 공원 등 시내 곳곳은 이른 시각부터 축제를 기다리는 관람객으로 가득 차며 이를 포함하면 1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순신광장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주제관 앞 넓은 해상 공간을 활용했으며, 높은 고도에서 크게 개화하는 타상 불꽃을 선보이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환상적인 공연에 흠뻑 젖어 들었다.

또한, 불꽃쇼에 앞서 라이트닝 드론쇼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특히 거북선에서 화포가 발사되는 연출 장면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

여수시는 이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인파 해산 시까지 여수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 등 적극적인 협조 아래 7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으며, 교통지도와 우회도로 안내 등 안전 유지를 이어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인파 관리에 총력을 다한 결과, 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종료됐다. 질서유지에 협조해 주신 시민, 관광객과 현장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